



미 증시, 애플 발 악재로 등으로 전강후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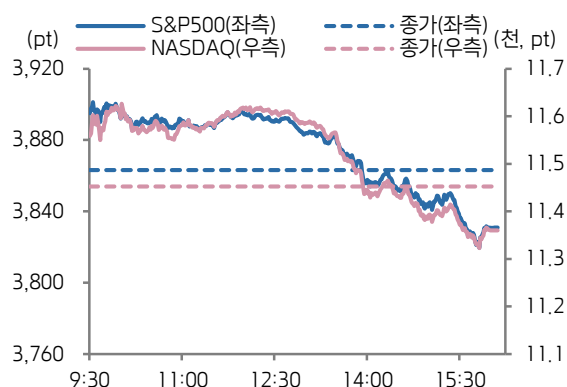
18 일(월) 미국 증시는 전일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 호실적으로 1%대 상승 출발했으나, 유가 100 달러 상회, 애플의 고용 및 지출 둔화 소식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전강후약 장세로 마감(다우 -0.69%, S&P500 -0.84%, 나스닥 -0.81%, 러셀 2000 -0.34%).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도 불구하고 증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8 일만에 100 달러를 재차 상회함. 사우디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한 OPEC+의 증산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짐에 따라 8 월 3 일 예정된 OPEC+ 회담에 관심이 모아짐. 또한 이날 러시아 에너지 업체인 가스프롬이 최근 송유관 가동 중단 이후 유럽 수입 업체들에 계약된 천연가스 선적 물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에너지 관련 우려를 높임.

미국 7 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55(예상치 65, 전월치 67)를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2020 년 5 월 이후 최저치 기록. 기준선인 50 을 상회하며 확장국면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물가로 인해 주택 시장 심리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집계측은 높은 건설 비용 및 자금 조달 비용과 공급망 차질 때문에 건축업체들이 건설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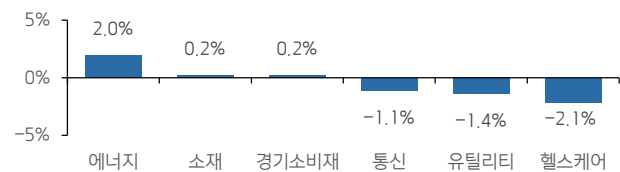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 소재(+0.2%), 경기소비재(+0.2%)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2.1%), 유틸리티(-1.4%), 통신(-1.1%) 업종은 약세.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 BofA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 우려했던 은행주들의 선방으로 2 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 그러나 이후 트위터, 넷플릭스 등에 이어 애플(-2.06%)도 잠재적인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을 감축하고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키는 등 긴축 경영 계획을 전하며 주가는 하락, IT 지수의 약세를 주도.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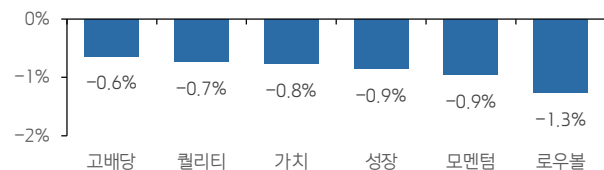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30.85	-0.84%	USD/KRW	1,317.18	-0.67%
NASDAQ	11,360.05	-0.81%	달러 지수	107.43	-0.59%
다우	31,072.61	-0.69%	EUR/USD	1.01	+0.03%
VIX	25.30	+4.42%	USD/CNH	6.76	+0%
러셀 2000	1,738.42	-0.34%	USD/JPY	138.12	-0.01%
필라. 반도체	2,679.57	-0.5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281.41	+0.52%	국고채 3년	3.220	+2.9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80	+5.8bp
Eurostoxx50	3,511.86	+1%	미국 국채 2년	3.174	+5.4bp
MSCI 전세계 지수	599.81	+0.18%	미국 국채 10년	2.986	+7bp
MSCI DM 지수	2,568.64	+1.8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61.85	-0.37%	WTI	102.6	+5.13%
MSCI 한국 ETF	57.28	+0.76%	금	1710.2	+0.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8.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애플 긴축 소식에 따른 국내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동성
2. 유가 강세에 따른 에너지 업종들의 주가 변화
3. 원/달러 환율 재 상승이 외국인 수급을 악화시킬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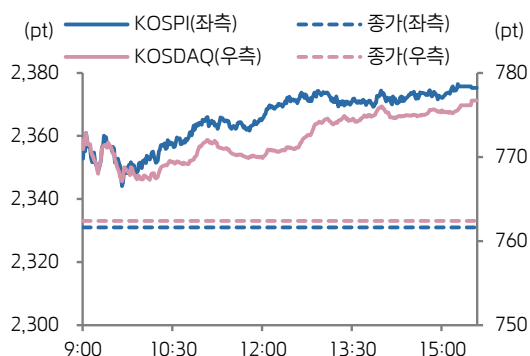
7월 15일자 Factset 데이터 기준으로, S&P500 내 7%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비율은 60%에 불과한 상황. 이는 과거 10년 평균(72%), 5년 평균(77%), 1년 평균(81%)을 큰 폭 하회하는 것으로서, 2분기 실적시즌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물론 JP 모건(컨센 하회), 씨티그룹(컨센 상회), 골드만삭스(컨센 상회) 등 미국 금융주 실적은 중립 이상의 결과를 내면서 양호한 실적시즌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음.

그러나 2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이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지출 둔화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의 뉴스플로우가 빅테크주들의 실적 경계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 또 6월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러 강세를 이유로 2분기 실적 전망 하향 공시를 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달러 강세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하는 것이 아닌 상황. 실제로 S&P500 11개 업종 중에서 소재(56%), 필수소비재(45%), 커뮤니케이션(42%)보다 IT(58%) 업종이 해외 매출비중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더 나아가, (한국 기업도 유사하겠지만) 지난 1분기 실적시즌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S&P500 기업들의 수가 417개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상황 속에서 6월 소비자물가(9.1%YoY) 및 생산자물가(11.2%YoY) 급등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에 마진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기업도 인플레이션, 연준 긴축과 같은 매크로에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1차 관문인 피크아웃 통과에 실패했으나(2차 관문은 레벨 다운), 7월 CPI 상 피크아웃할 것으로 판단. 6월 중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나 뉴욕 연에서 집계한 6월 공급망 압력지수가 2.41pt로 지난 12월 정점인 4.35pt에서 큰 폭 하락하면서 ‘21년 4월(2.47pt)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그 증거. 7월 CPI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차주 예정된 7월 FOMC(75bp vs 100bp, 당사는 75bp 전망) 및 빅테크주들의 실적결과(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실적 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며, 해당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수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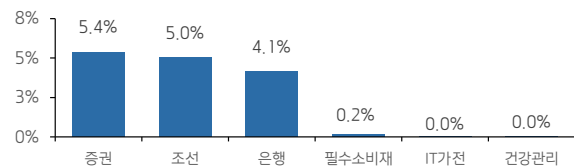
전일 반도체 및 인터넷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코스피 +1.9%, 코스닥 +1.9%)는 금일 애플발 IT 주들의 실적 경계심리 등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다만 국제 유가 반등, 미국 금융주들의 호실적 등을 감안 시 에너지 및 은행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전환 배경에는 반도체주センチ멘트 개선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 고점 인식이 영향을 가했던 만큼, 장 중 원/달러 환율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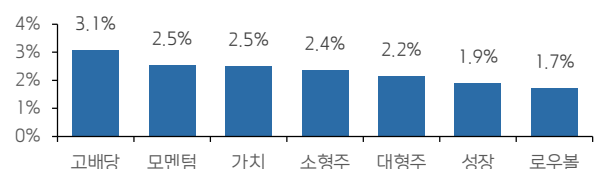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